

시론

正道를 가라

“먼 것이 가깝고 간접이 직접이다.”
한의학에서는 눈이 나쁘거나 병이 생기면 눈만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간을 다스린다고 들었다. 머리가 아프면 발바닥이나 손바닥, 또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의 어떤 부위를 누르기도 한다. 머리와 발바닥은 사람의 인체위치를 보면 하늘과 땅 사이로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직접 어떤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는 식의 원리 때문에 그러한 치유법이 생겨났으리라고 본다.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그러한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요사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외치고 금융산업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등 경제적 대책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일용율은 대응이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 대책방안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공정한 게임과 경쟁의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2백50년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태만과 낭비’라고 일컬었던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바로 오늘날 경제위기의 본질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도 이를 말해준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아주 뚜렷이 나타난 결과는 경제현상에 있지만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부문에서 아주 심하게 쌓여오고 있었다. 경제보다 정치에, 정치보다 사회에, 사회보다 교육·문화에, 그리하여 교육·문화 부문보다 정신적 지도 부문인 종교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배태되어 왔었고,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까.

젊은 대학시절 고승대덕(高僧大德)을 친견하려 산사를 찾아 해매던 때 어떤 스님이 차탄조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금강산에 도인이 없으니 서울 장안에 인물이 안 난다”고. 그때는 알 듯 모를 듯 하였으나, 수십년이 지나고 보니 조금은 스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요새 어느 정당에서는 ‘토니 블레어’론이 한창이다. 영국의 젊은 기수가 멋지게 하고 있으니 그게 좋아보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영국이란 곳은 이미 2백50년전에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질타하면서 경제적 이득추구 경쟁 이전의 ‘도덕적 정조’를 강조하던 선각자가 있었다. 이후 수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어 사회에 공정한 게임의 틀을 확립하고, 가진 자와 배운 자의 ‘노블리스 오브리제’(높은 지위에 수반되는 가중 책임) 실천으로 하나씩 벽돌을 쌓아 선진대국의 금자탑을 이룩한 나라가 아닌가.



김규철
(산업기술정보원 원장)

“그동안 위정자들은 편법·반칙 즐겼다
“먼 것이 가깝고 간접이 직접이다”

장부들이 과연 제대로 대접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역사가 지난 백년이나 되는데, 어찌 금방에 ‘토니 블레어’가 나오겠는가. 어찌 한 무덤에 선진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공덕이 쌓여야 좋은 과보를 낳는 법.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 또한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금강산 유람단 신경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강산에 도인이 계신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를 잘 하려면 정치·행정을 잘 해야 하고, 정치·행정을 잘 하려면 교육·언론·시민사회가 잘 해야 하며, 교육·언론·시민사회가 잘 하려면 종교계와 정신적 지도자가 잘 해야 한다.

열린마당

혜불과 종교편향

혜불·종교편향 사례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병대를 예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발언, 송파구청장 강북구청장 취임식의 ‘경경선서’를 비롯한 문제가 된 사례만 11건에 이른다.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이룰 새로운 가치관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처로 귀중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불행한 현실이다. 개신교 유일신사상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종교지도자와 중우행정당당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남의종교 존중...불자에 사과해야”

김상근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혜불사건이 계속 되다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지난 6월말 제주도에서 발생한 천불훼손 사건을 듣고 참으로 크게 놀랐다. 불교당국과 모든 불자들에게 사죄를 구한다.
기독교의 신관(神觀)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유일신관이다. 유일신관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게 한다. 다른 종교와 신앙을 정복하는 것이 높은 신앙이고, 자기종교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런 사상은 유대인의 민족주의에서 배태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특수한 배타주의로, 그들은 단일종교사회를 이루었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당연히 강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종교사회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심도있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종교,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면 너의 종교, 너의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신앙도 존중 받을 수 있다.
각 종단들은 정복적인 대립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연합을 중시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일치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은 동과 서, 남과 북의 갈등을 극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다시금 가슴아픈 혜불 사태를 보며 우선 종교지도자들이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도보다 화합위한 노력 절실”

윤청하 <문화관광부 중무관>



다종교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이 상호 조화롭게 작용하여 사상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의 근본적인 대립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중무실은 ‘종교간의 화합발전’ 차원에서 종교간 상호이해와 대화기회 마련에 비중을 두고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예술제, 종교언론인심포지움 등 범종교 화합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 화합발전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사찰 성당화재나 종교상징물 훼손사건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종교축일에 대한 상호경축, 타종교시설 교황방문 등의 사례는 우리 종교계의 화합발전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또 제도적 보장책으로 초등학교 등에 대한 ‘종교일반교육 실시’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부, 종교계와 국민들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다원주의 인정 신도교육”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와 종교관이 존재하고 있다. 천주교는 60년대 이후 ‘자기 문화·양심 안에서는 모두 구원받고 구원할 수 있다’는 ‘개방적 구원관’을 정립하는 등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황청은 1964년 특별기구로 종교간 협력을 위해 ‘종교간대화평의회’를 구성하고 종교간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혜불, 종교편향적 행태는 타종교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선교의 대상’으로 단정되고 공격적인 구원관을 강요하는 일부 종교의 편향적 선교방식이 빚은 결과이다. 이는 신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직자들의 잘못이다. 자신의 종교관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타종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신도 개개인이 종교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져 오던 종교간 대화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일련의 혜불사건과 종교편향사태에 대해 불교계는 감정적이고 집단적 대응으로 맞서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참회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감사 안을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이웃 살피지 않음이 이상승배”

이천수 <김신대 강사>



사실 그리스도교, 그것도 개신교 안을 들여다보면, 혜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남을 향한 분위기가 있기도 하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킨다면서도 그저 문자에만 매이는 바람에 오히려 그 속뜻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한다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웃의 삶, 그 내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자기 안에 독점하는 행위가 이상승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도 전에 공격적인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들마저 있는 실정이다. 그것이 바로 이상승배인 것이다.
개신교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교육사업이나 사회사업도 제법 벌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대가 개신교이기도 하다. 이러한 꿈틀거림이 속속과 담담한 개신교를 그나마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불교계는 행여라도 똑같이 호전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 천황님같은 너털함, 큰누님같은 인자함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사태의 재발을 막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

“불자 결집 신앙 권리 지키자”

도완 <새불교승가회 운영위원장>



1600여년 한국불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토대이다.
혜불행위는 행위를 한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타종교에 배타성과 적대성을 띠는 신도교육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불어 행정기관과 언론 등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적인 행태들이 가세함으로써 혜불과 불공정한 종교정책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스님과 신부님간의 교류도 있었고, 종교연합의회등에서도 종교화합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런 움직임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할 때 가능하며 종교인 각자가, 특히 각 종교의 지도자가 종교화합과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혜불과 종교편향사건이 있을 때마다 혹 종교갈등으로 비쳐질까 염려해서 불교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은 신앙권 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일도 병행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무속과 불교의 명확한 차별화이다. 간간히 TV화면에 미치는 무속인의 모습 뒤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이를 보고 ‘불교는 곧 무속’이라는 인식의 확산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미래를 점치거나 요행을 기대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중단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혜불과 종교편향에 대처키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7월18일 열린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

성야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비비비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승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문문제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비비비>는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사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비비비를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사의 백미이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달마가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영산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영성이 오소 리즈너워의 생애 마지막 발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소 리즈너워는 특유의 페이스로 남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설적이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이명옥 · 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원신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해종국사의 환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위 버렸다. 스승 위선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승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양종(沝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